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531 East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www.sjkoreancatholic.org

대림 제4주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비천한 인간이 되시어 인간 존재가 겪는 고통스러운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하느님이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는지요? 이 질문에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에게 “왕과 하녀” (The King and the Maid)라는 예화로 그 답을 들려줍니다. 옛날 어느 왕이 비천한 곳에 사는 어떤 하녀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신분상의 엄청난 차이에도 왕은 그 하녀와 혼인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그 하녀를 아내로 맞을 수 있을지를 묻자, 신하들은 왕의 권한으로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하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가 그 하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하녀도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하녀를 왕국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을 때, 비록 길으로는 왕의 아내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왕의 비천한 하녀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왕이 얻은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려면 그와 똑같은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마침내 왕좌를 버리고 왕관과 왕홀을 포기하고 종의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나와 비천한 신분이 되어 하녀에게 가서 청혼을 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리 2,6-7)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한 날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날이 우리와 똑같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성탄입니다.

◆ 미사 성가 : ◆ 입 당 (88) ◆ 봉 헌(70,89,221) ◆ 성 체(174,176,501) ◆ 파 견(93)

제 1 독 서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7,1-5.8ㄷ-12.14ㄱ.16
(다윗의 나라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질 것이다.)

화 답 송 : 시편 89(88),2-3.4-5.27과 29(◎ 2ㄱ 참조)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6,25-27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신비가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6-38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 | | | | | |
|---------|---------------------------------------|------------------------------------|--|---|--------------------------|
| 주 임 신 부 | 황 선기 마티아 | 408-734-9722 | <주 일 미 사> | 청년(토요특전) 미사 07:30 pm 첫 미 사 08:00 am 교 중 미 사 10:30 am 어린이미사 01:00 pm 중고등부미사 02:30 pm | <사 무 실 시 간> |
| 전 교 수 녀 | 김 아나니아 김 실베리아 | 408-261-9520 | | | |
| 사 목 회 장 | 김 규호 안드레아 | 408-363-9908 | <평 일 미 사> | 화, 목요일 07:30 pm 수, 금요일 07:30 am | |
| 선종봉사회장 | 윤 필중 바오로 | 408-529-6757 408-482-2677 | | | |
| 사 무 실 | 여 성운 안드레아 | 408-734-9721 408-734-9723 (fax) | | | |
| 주일학교교감 | 정 현석 버나드 | 650-391-4473 | | | |
| 한국학교교감 | 안 회경 엘리사벳 | 408-914-1525 | | | |
| 중고등부교감 | 석 상민 필립 | 510-754-3436 | | | |
|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 | <정 규 교 육 안 내> | | |
| 병자성사 | 수시로 | | 예비자교리 일요일 9:00 am | | |
| 유아세례 | 4, 8, 12월 첫째 토요일 | | 주일학교 일요일 2:00 pm(초등부), 1:00 pm(중고등부) | | |
| 혼인성사 | 3개월 전 주임신부와 면담 | | 한국학교 토요일 9:30 am | | |
| 병자영성체 | 매월 첫째 금요일 | | 성경공부 수요일 10:00 am, 7:30 pm / 토요일 청년미사 후 | | |
| 준 성 사 | 집, 가게 축복: 해당 반장에게 신청 차 축복: 사무실에 신청 | | 소공동체장교육 매월 마지막 화요일 미사 후 혼인교리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 | |

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

광고에 참여하신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선교홍보비로 지출됩니다. 주님의 축복 있으소서.

| | | | |
|--|---|---|--|
| <p>TATAMI 타타미 스시 씨푸드 뷔페 SUSHI & SEAFOOD BUFFET www.tatamibuffet.com 북가주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고품격 일식 뷔페 들잔치, 생일 잔치, 결혼 피로연, 각종 모임등 단체 예약 환영 Valco Shopping Mall / 10123 N. Wolfe Rd. #2001, Cupertino Tel: 408-996-3444 교우할인 10% off</p> | <p> 스모그 체크 오일 체인지 3k,6k,9k 정비 터보 자동차 정비공장 3170 El Camino Real #FG Santa Clara, CA 95051 정운홍 요셉 Tel: 408-554-1199 (24hrs)</p> | <p>이은영 부동산 Infohome Realty 부동산 매매, 용자 재용자 이은영 클라우디아 408-316-2032</p> | |
| <p>중앙 종합보험 자동차/주택/Life/건강/사업체 연금/교육/종업원 상해 박진완 안토니오 408-260-7089</p> | <p>카미노 당구장 고태호 마태오 408-249-7425 3030 El Camino Real (서울 고평 옆)</p> | <p>Heritage Park Willowbend Apartment Sunnyvale에 위치 / 편리한 교통 좋은학군 / 수영장 / 운동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 단지 408-738-3553</p> | <p>백형욱 (바오로) 치과 827 Blossom Hill Rd. #E-4, San Jose  (408) 226-5560 www.DDSBaik.com</p> |
| <p> Smythe European Mercedes - Benz 벤츠를 가장 잘 아는 한국인 케니 김 베드로 cell: 408-515-0001</p> | <p>석병엽 부동산 미주 부동산 주택/사업체 매매전문 석병엽 스테파노 408-483-7694 cell</p> | <p>잔김 종합 보험 생명/연금/건강/차량/주택 비즈니스/상해 보험 김인홍 요한 408-314-4079</p> | <p>Dolphin's 수영장 관리 수영장 수리 및 관리 김한수 어거스틴 408-378-8240</p> |
| <p>최형란 부동산 Coldwell Banker 최형란 헬레나 408-892-2040 www.helenachoice.com</p> | <p>남해나 부동산 BMC Real Estate 산라몬 덴빌 플레즌트 더블린 남 올리안나 925-389-2162 www.hannahrealtor.com</p> | <p>건강 마을 선식 생식 그 외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 갤러리아 마켓 내 안병선 요한/안해숙 크리스티나 408-246-2430</p> | <p>플러밍 & 드레인 ◎ 상·하수도 막히고 새는 곳 ◎ 부엌 및 화장실 수리 ◎ 전기 디스포잘, 보일러 수리, 교체 <캘리포니아 플러밍> 이원권 마지아 408-252-1134 / 650-322-2458</p> |
| <p>이동준 공인회계사 개성상인 성공신화 3380 El Camino Real, Ste A Santa Clara, CA 95051 (FANCI 공인회계법인 CEO) 이동준 크리스토퍼 408-241-9615</p> | <p>성 토마스 병원 일반내과 / 물리치료과 척추 신경과 1470 Halford Ave. SC 심형근 크리스토퍼 408-260-7575 (치료치료)</p> | <p>중앙치과 일반치과, 교정치과 2998 El Camino Real #200 Santa Clara, CA 95051 안상균 요셉 408-241-2397</p> | <p>박현교 산부인과 2405 Forest Ave. #202 San Jose, CA 95128 박현교 바드리시오 408-260-3900 박경숙 소아과 3484 Stevens Creek Blvd #D 박경숙 아가다 408-293-3333</p> |
| <p> 황 준오 웨미리 치과 소아치과, 일반치과, 치아교정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408-732-0493</p> | <p>카타리나 김 부동산 BC REALTY 주택/사업체 매매전문 408-821-9788 1021 S. Wolfe Road #105</p> | <p>지드한인업소록 유익한 매거진 즐거운 한주 모닝뉴스 탁정현 토마스 / 탁경아 예바 TEL: 408-499-6543 / 408-248-0017</p> | <p> J's Art 박 요안나 가톨릭 서적, 성물, 수공예품판매 3484 Stevens Creek Blvd #A 408-293-3391</p> |
| <p>박안나 부동산 Alain Pinel 박안나 안나 650-543-1080(D) 650-387-6159(C)</p> | <p>SIGNOne Lic # 936356 (C-45) 박상웅(안토니오) 408.569.6265 간판 현수막 상패</p> | <p>정수기 비데 아쿠아 라이프 정수기 가정용, 상업용, 사무실용 렌트 판매, 수리 이용우 베드로 1-800-500-7714</p> | <p>www.JobCallings.com A Company of GHT Connections, Inc. Staff Recruitment in High-Tech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태양에너지산업 연락처: Elizabeth Choi (Sue Chung) 408.489.9596 / info@jobcallings.com</p> |
| <p>이부웅 내과, 소아과 2040 Forest Ave. #3 San Jose, CA 95128 이부웅 마리우스 408-977-1310</p> | <p>데비 양 부동산,용자 Smart Realty MOA Financial Group 양희진 대보라 408-205-7564</p> | <p>캘리포니아 한의과 대학 (408)260-0208, ext:209 한국어반 학장 박희례(안나) Cel)831-818-2959 유학생 환영, 1-20 발급</p> | <p> Golf Tech PGA 정식인가학교 컴퓨터 스윙 분석/교정 Custom 클럽 제작/수선 Terry Kim 비오 408.316.0056</p> |
| <p>알렉스 박 변호사 Law Offices of Alex C. Park 이민 형사 상법 추방재판 상해 교통사고 408-246-1515</p> | <p> 최동석 유스티노 Santa Clara 408)828-2849 Fremont 510)919-4556</p> | <p>게스 관광 서부관광 전문 크루즈 전문 엘로스톤/동부/캐나다 손유스티나 408-244-0033/408-944-9007</p> | <p>SKOOL-AID 학원 전 과목/개인, 그룹지도/교육상담 1072 De Anza Blvd. #B203-204 San Jose, CA 95129 정성애 카밀라 408-517-0500/757-1808</p> |
| <p> 1600Saratoga Ave. #107 San Jose, CA 95129 장상영 요한 408-370-7275 20% off Coupon 여성리뷰 전문점</p> |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전문(카드빚,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 Ste 265 408-982-0999</p> | <p>Verizon 핸드폰 셀컴 와이어레스 Sunnyvale 한국마켓내 서베드로 408-554-6010</p> | <p>신수형 용자 MOA Financial Group 신수형 소피아 408-712-8500</p> |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1)증명서(세례, 견진, 혼인)를 제출한다. 2)한국 본당의 교적을 제출한다.

우리 본당에 등록을 한 교우들은 아래 3 가지를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 ▶ 소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하도록 합니다.
- ▶ 1년에 최소 2번 이상 한국미사와 2회 이상의 (부활, 성탄)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매달 정성껏 교무금(Donation)을 교회에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도구”

우주 만물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중 하나이며 창조주의 목적을 지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역사 속에서 드러난 창조주의 창조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한 창조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교만, 자만심으로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느님의 길을 막아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나 때문에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도구라는 것을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하느님까지 자기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이 하느님의 도구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신비로운 계획을 감행하시면서 인간 측의 역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기꺼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종이라 고백하며 불합리한 요구에도 겸손하게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을 세상에 낳아주는 하느님의 그릇, 하느님의 구유가 되셨습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덕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직시하여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생각에 불합리해 보이는 하느님의 뜻에도 순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하느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가 하느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모님처럼 늘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여정입니다. 또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인간이 모르는 차원에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힘든 과정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에게 닥치는 힘든 과정들을 수용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불합리한 부분도 받아들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고찬근 루카 신부/서울대교구 성소국장

끊이지 않는 사랑과 봉헌

| | |
|---------|-----------|
| 교 무 금 | \$ 10,215 |
| 주 일 헌 금 | \$ 3,765 |
| 2 차 헌 금 | \$ 831 |

■ 교무금 봉헌하신 분

- | | | | |
|------------|------------|------------|----------------|
| 강병길(12) | 고응봉(12) | 곽덕찬(7-12) | 김병해(11-12) |
| 김기상(9-12) | 김만희(10-12) | 김상옥(10-12) | 김영익(9-12) |
| 김원순(12) | 김운태(12) | 김정순(10-12) | 나종빈(11-12) |
| 노성차(11-12) | 민선기(11-12) | 박성태(12) | 박승경(8-12) |
| 박인수(9-12) | 박종일(6-12) | 박진아(11-12) | 석선옥(12) |
| 석흥기(12) | 성영진(10-12) | 성진모(1-12) | 신성원(9-12) |
| 오영길(12) | 원동준(1-7) | 유강주(11-12) | 유재정(11) |
| 윤종도(11) | 윤창호(12) | 이경호D(7-12) | 이경호J(9-10) |
| 이덕원(11-12) | 이동욱(12) | 이명지(11-12) | 이복례(12) |
| 이은주(10) | 이준환(12) | 이태희(10-12) | 정운홍(7-12) |
| 조동우(9-12) | 조영규(9-12) | 조태엽(12) | 최석순(1-12/2012) |
| 최봉래(11-12) | 최한선(12) | 한동수(12) | 한상호(11-12) |
| 홍영숙(11-12) | 황진욱(12) | 황혜정(12) | |

■ 단체 입금 : 성물방 \$658, 요아킴회 \$800

■ 광고 헌금 : 초이스 자동차 바디 \$400, 김대중 산부인과 \$400,

■ 건축기금 모금

| 지난주 합계 | 금주 합계 | 누 계 |
|----------------|-------|----------------|
| \$1,084,423.40 | 0 | \$1,084,423.40 |

■ 신앙서류 도착 - 사무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찾은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 | 본명 | 발송 본당 | 내용물 | 도착일 |
|-----|-------|------------|------|-------|
| 이희호 | 세라피나 | 서울, 신내동 | 전출교적 | 12/14 |
| 전재홍 | 안드레아 | 수원, 영통성요셉 | 전출교적 | 12/1 |
| 강덕환 | 프란치스코 | 서울, 사당5동 | 전출교적 | 7/14 |
| 전윤조 | 세실리아 | 수원, 성복동 | 전출교적 | 3/8 |
| 강유경 | 율리안나 | 광주, 양산동 | 전출교적 | 2/1 |
| 최하나 | 유리다 | 수원, 수지 | 전출교적 | 1/11 |
| 박연지 | 루치아 | 수원, 분당성마태오 | 전출교적 | 11/12 |
| 공신인 | 체칠리아 | 대구, 두산 | 전출교적 | 9/18 |
| 최윤환 | 요한 | 수원, 과천 | 전출교적 | 10/13 |
| 이재환 | 베드로 | 부산, 성가정 | 전출교적 | 5/17 |

■ 주일미사 전례담당 구역

| 주 일 | 담당 구역 | 구역 장 |
|-----------|--------|---------|
| 대림 제4주일 | 로스알토스 | 신경란 아가다 |
| 예수 성탄 밤미사 | 전례부 | 최광섭 요한 |
| 예수 성탄 낮미사 | 전례부 | 최광섭 요한 |
| 성모마리아대축일 | 산호세1구역 | 허순구 야고버 |
| 주님 공현 대축일 | 산호세2구역 | 강석용 베드로 |

성탄 전 판공성사에 임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 주임신부 -

- 성탄 대축일 구유 예물 및 합동 가정 미사 예물 준비
12월 24일 성탄 밤 미사 : 구유 예물, 합동 가정 미사 예물
12월 25일 성탄 낮 미사 : 합동 가정 미사 예물 (밤 미사에

참석 하지 못한 분들), 봉헌 (비닐)

* 성당 입구에 구유 예물봉투와 성탄 합동 가정 미사 예물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성탄 밤 미사 및 낮 미사 전에 합동미사예물을 성당입구에 마련된함에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예물은 구유경배 때 아기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 ADA (교구청 교무금) 납부 안내

2011년에 약정하신 ADA를 올해 안에 완납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12일 현재 93.2%의 목표액 달성

■ 산호세 교구내의 새 본당을 위한 헌금내역

지난 11월 6일(일) 산호세 교구 내 새로운 본당 "Appeal for Our Lady of Refuge" 을 위한 2차 헌금에서 저희본당에서 총 \$4,623을 봉헌하여 주셨습니다. 봉헌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산호세 교구 Total Pledged \$ 1,779,301.45
Total Paid \$ 1,352,076.45

전례/영성생활

※ 축 세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신 27분의 세례를 축하합니다. 이분들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도록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 성탄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

깨끗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월 21일(수) 오후 6시 (산호세2 구역 식사)
장소 :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대상 : 산호세 2구역과 판공성사를 못한 모든 교우 분

* 12월 21일(수) 평일미사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 성탄 준비 고해성사 (손님 신부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일시 : 12월 18일(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 봉성체 : 12월 23일(금) 오전에 있습니다.

■ 성탄 꽃 봉헌

성탄 제대 꽃을 봉헌 하실 분은 수녀님께 연락바랍니다.

■ 성탄축하 음악회

일시 : 12월 24일(토) 오후 7시 20분
장소 : 천주교 산호세 한국순교자성당
합창단과 Muse Ensemble이 함께하는 성가에서 캐롤과 가요까지 함께하는 Music Buffet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성탄시기 미사 시간 안내

| 날 짜 | 미사 시간 |
|--|------------------------------------|
| 12월 24일(토) (예수 성탄 밤 미사) * 오후 7시 30분 토요 특전미사 없음 | 오후 9시 |
| 12월 25일(일) (예수 성탄 대축일) * 오전 8시 미사 없습니다. * 오후 2시 30분 미사 없습니다. |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주일학교) |
| 12월 31일(토) * 송년미사 없습니다 | 오후 7시30분(특전미사) |
| 2011년 1월1일(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오후 2시 30분 미사 없습니다. | 오전 8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주일학교) |

청소년

■ 초, 중, 고등부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일시 : 12월 18일(일) 오후 1시 미사 후 / 장소 : 본당
* 오후 2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한국학교 휴교

일시 : 12월 24일(토), 12월 31일(토)

■ 초, 중, 고등부 주일학교 휴교

일시 : 12월 25일(일), 1월 1일(일)

회의/단체/모임

■ 사목협의회 : 12월 20일(화)

■ 구역장 회의 : 12월 22일(목)

■ 레지오 마리아에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2월 25일(일) 오후 12시 / 장소 : 말씀의 방

■ 봉사자의 밤

일시 : 12월 28(수) 오후 6시 / 장소 : 친교실

■ ME 2011년 송년 모임

일시 : 12월 30일(금) 오후 6시 / 장소 : 친교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양애릭(어거스딩)어린이
박정현(세실리아)자매님
김성태 (야고보) 형제님
임승빈(다윗)학생
이정자(올리안나)자매님
이영재(헬레나)자매님
임인식(요셉)형제님
김중환(아벨로)형제님
김순덕(까리마스)자매님
김병국(베드로)형제님
최성욱(엘리사벳)자매님
노호경(베로니카)자매님
박갑순(루시아)자매님 (치매)
서봉석(베드로)형제님
이경호(다니엘)형제님
신성희(라파엘라)자매님

김지원(실비아)자매님
이순(에우프라시아)자매님
윤정수(베드로)형제님
현옥선(세실리아)자매님
박찬우(어거스틴)어린이
이재섭(니콜라스)형제님
김용화(에필리아나)자매님
안태주(마리아)자매님
민장석(레오)형제님
김윤주(페르페투아)자매님
김봉희(마리아)자매님
김태영(베로니카)자매님
김주동(스테파노)형제님
이복례(마리아)자매님
박기섭(아모스)형제님
이인식(요한)형제님

기타

※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환영위원들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